

중기부 제1차관, 싱가포르 기업청장과 면담

- 노용석 제1차관, 지난 3월 싱가포르 순방 후속으로 신디 쿠 싱가포르 기업청장과 고위급 교류 추진
- 한-싱가포르 창업 정책 및 스타트업 축제 교류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이 7월 9일(목) 중기부를 방문한 신디 쿠(Cindy Khoo) 싱가포르 기업청장과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난 2024년 8월 이를 갱신했다. 이후 양국 스타트업 행사(한-COMEUP, 싱-SWITCH) 참여, 스타트업 상호 진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펀드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또한, 중기부는 올해 3월 싱가포르 정상 순방 일정에서 리찬텍(Lee Chuan Teck) 싱가포르기업청 회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양자면담에서는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해 싱가포르와의 역내 스타트업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그 후속으로 한국에서 진행됐다. 싱가포르 측은 한국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 동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올해 개소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Seoul), 「모두의 창업」, 그리고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창업도시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지난 면담에서 싱가포르 측이 관심을 보였던 ‘정부 첫 구매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또한, 양측은 오는 12월에 열리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과 싱가포르 대표 스타트업 행사 ‘스위치(SWITCH)’ 간 교류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금융산업의 허브이며, 스타트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라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스타트업 간 실질적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정소영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안진주 (044-204-7476)
			주무관	심수연 (044-204-7566)

